

자료제공 : 2023. 1. 17.(화)
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

도로관리과장	이정화	2133-8150
도로관리팀장	윤인식	2133-8152
담 당 자	양재신	2133-8160
	손창수	2133-8155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2매

서울시, 17일(화) 눈 예보로 비상대응체계 가동

- 17일(화) 18~24시 사이 1cm 눈 예보
- 17일(화) 16시부터 제설 1단계...서울시·자치구·유관기관 등 비상근무체계 돌입
- 인력 4,893명, 장비 1,197대 동원, 제설차량 장비 전진배치, 제설제 사전살포

- 기상청에서 1월 17일(화) 저녁(18~21시)부터 늦은밤(21~24시) 사이 서울에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서울시는 17일(화) 16시부터 서울시, 자치구, 유관기관 등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.
-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해 서울에 눈구름이 도착하기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, 인력 4,893명과 제설장비 1,197대를 투입하여 강설에 대비한다.

- 골목길, 급경사지에 비치되어 있는 제설함에 제설제와 눈삽 등 장비를 보충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, 1cm 내외의 눈이 예보된 만큼 내 집 앞,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동참도 당부했다.

-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“서울시는 강설에 대비하여 가용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할 것”이며, “시민 여러분께서는 강설시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리며, 미끄러짐이나 낙상사고 등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란다”고 말했다